

대구주보

대림 제4주일

2014. 12. 21. (나해) 제1922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_053)250-3048~9 _http://www.daeguujubo.or.kr



성모당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루카 1,26-38 참조)

계약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고 다윗 왕이 청하자 하느님께서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 이냐?”하고 되물으십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새 계약의 궤는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아홉 달 동안 태중에 모시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미사 때마다 같은 분을 우리 몸 속에 받아 모십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은총의 통로는 순종입니다.

제1독서 2사무 7,1-5.8ㄷ-12,14-16 **제2독서** 로마 16,25-27 **복 음** 루카 1,26-38
입 당 송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화 답 송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의 마음 - 성탄의 통로

이종하 스테파노 신부 | 도량본당 주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시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식 밖으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약혼자가 있는 여인에게 하느님께서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아무개라 하여라.”하시면, 당연히 “아! 신랑과 나 사이에 생길 첫 아이는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여인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반응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할 때 평생 동정부부로 살자고 깊이 맹약한 것을 전제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마리아는 세 살 때 당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자헌)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정녀 공동체에 입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혼인을 위해 퇴소한 뒤 요셉과 약혼하셨으니, 두 분 사이에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기 전에도, 낳으신 후에도 항상 동정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두 사람 사이의 맹약을 모르실 리 없으시건만 어찌 그런 전갈을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든 마리아의 반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그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상세히 설명을 하자,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순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명에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선 요셉을 납득시켜 주시리라는 신뢰입니다. “아니, 평생 동정은 고사하고 외도까지 저지른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하고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될 요셉의 모습이 불 보듯 훤히 내다보입니다. 무슨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느님을 신뢰하십니다. 또 간음자와 신성모독자는 재판도 없이 돌을 던져 죽이는 모세법을 모르실 리 없는 마리아입니다. 세 살 때 이미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지니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마리아께서 아이를 잉태한 후의 여파를 짐작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마리아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고 응답하실 때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마무리하시리라는 믿음과 동시에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어도 좋겠다는 각오를 지니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자기투신이 곧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통로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성탄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과 닮을 때에 우리 안에서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조 율리엤타 수녀가 조환길 대주교님께

“대주교님, 잘 계시는지요? 한참 소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케냐에 모임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물 건다가 갈비뼈에 금이 좀 가고 또 이런저런 병이 보인다고 CT를 찍으라고 하는데, 여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는 그 기계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케냐 모임에 간 김에 그곳에서 진료를 받았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 때문에 약간의 염증이 보였고 장티푸스를 몇 번 앓은 영향이 좀 있지만, 다른 건강들은 괜찮다고 결과가 나와서 참말 다행이었습니다.



대주교님, 하느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케냐에 가 보고 이곳 중앙아프리카가 얼마나 가난과 비참에 잠겨 있는 오지인지를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곳에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고 계속 하느님 사랑을 전하도록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이 사랑받는가 봅니다. 대주교님, 이런 오지에 우리 훌륭한 신부님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 신부님, 배 신부님* 모두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사시는지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피난민들과 이곳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을 것도 없는데 주민들에게는 약이나 진료 자체가 무척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하루에 요 작은 진료소에서 약 백여 명 진료하고 예방접종 해 주고 영양실조 영아들 우유 나누어주고 나면 세 시나 되어 끝납니다. 오후 네 시쯤 점심 먹고 나면 그야말로 콧 쓰러집니다. 그래도 끝기도 후 우리 대주교님과 신부님들을 위해 성체 앞에서 훌륭한 목자 되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주교님 건강하시고 대주교님께 맡겨진 사제들을 많이 사랑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대림 3주일이 지납니다. 곧 오실 아기 예수님께 대주교님께서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게 해 주시길 빕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조 율리엤타 수녀 드림

* 남 신부님과 배 신부님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대구대교구 소속 남종우 그레고리오 신부님과 배재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입니다. 이 나라에는 또 조 수녀님을 비롯한 샬트르 성바오로회 대구관구의 수녀님들이 파견되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작년에 내전이 발발하여 현재 100만이 넘는 난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갑과 을

甲乙

이지운 시문 신부 | 월성본당 부주임

최근 어느 TV 개그 프로그램에, ‘갑’과 ‘을’의 관계를 꼬집어 풍자해 놓은 한 코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코너 속 목욕탕 편을 보면, 목욕탕 주인이 정수기가 고장 나 서비스 기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갑의 위치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아 온갖 갑질을 해댑니다. 하지만 서비스 기사들은 을의 위치에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모욕과 수모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수기를 다 고친 서비스 기사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 다시 목욕탕 손님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을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수모와 모욕을 갑의 위치가 되어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면서, 시청자들에게 묘한 쾌감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이런 ‘갑’과 ‘을’의 반전이 웃음의 코드로 전달되며 통쾌함을 가져다주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미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만연하기 때문이겠지요. 최근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도 그 갑을 관계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잘 그려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래 ‘갑’과 ‘을’이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이 ‘갑’과 ‘을’은 상하관계나 주종관계의 의미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돈과 계약을 매개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은 ‘갑’의 횡

포를 참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당함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갑을의 관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해 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4)고 말씀하셨고, 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 13,14)고 말씀하셨습니다. ‘슈퍼 갑’의 위치에 계셨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슈퍼 을’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의 역할에 대한 본보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갑’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질’을 하는 다른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이의 종이 되어 ‘슈퍼 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느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의 낮아짐 안에서 우리 신앙인의 역할을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장래가 촉망되던 미국의 젊은 의사 톰 카테나 박사는 2007년 대형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리를 마다하고 세상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중 하나이자 내전이 한창이던 아프리카 수단에 <자비의 성모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이 병원은 현재 중부 수단에서 외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인데, 그것은 바로 카테나 박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시설과 환경 속에서 카테나 박사는 행복합니다.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내전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교통망도 통신시설도 없습니다. 의료물자는 1년에 두 번 수송기가 날라다 주는 것이 전부이고, 수세식 화장실도 없는데다가 생리식염수가 떨어지면 우물물에 소금을 풀어 만들어 써야 하는 병원, 이곳에서 카테나 박사는

미국의 동기 의사들이 일주일이면 버는 연봉을 받고 일합니다. 하지만 카테나 박사는 “아프던 환자가 나아가는 걸 보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보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이들에게 한 것이 당신께 해드린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의사 노릇인데, 그걸로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무지와 시설의 미비로 고칠 수 있는 병을 안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하는 카테나 박사는, 삶과 죽음이 우리 손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늘 실감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일 못합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12월 21일	성 글리체리오(신부, 순교자, 니코메디아, 303년), 성 아나스타시오(총대주교, 순교자, 안티오키아, 609년) 성 베드로 카니시오(신부, 교회학자, 1521-1597년)
12월 22일	복자 아담(신부, 은수자, 작센, 1210년), 성 카이레몬(주교, 순교자, 닐로폴리스, 250년) 성 플라비아노(순교자, 4세기경), 성 플로로(순교자)
12월 23일	성녀 빅토리아(동정 순교자, 250년경), 성 세르볼로(불구자, 590년경) 성녀 아나톨리아(동정 순교자, 250년경), 성 요한 칸시오(신부, 성서학자, 켄터, 1390-1473년) 복자 하르트만(주교, 브릭센, 1164년)
12월 24일	성 텔피노(주교, 보르도, 403년), 성녀 아델라(과부, 수녀원장, 팔젤, 734년) 성녀 이르미니(동정녀, 710년경), 성녀 타르실라(동정녀, 로마, 581년)
12월 25일	성녀 아나스타시아(과부, 순교자, 시르미움, 304년), 성녀 아달신다(수녀, 아마예, 715년) 복자 야고포네(수사, 시인, 토디, 1230-1306년), 성녀 에우제니아(동정 순교자, 로마, 257년경)
12월 26일	성 디오니시오(교황, 192/200-267/268년), 성녀 빈첸시아(설립자, 1847-1890/1896년) 성 스테파노(순교자, 부제, 35년경), 성 조시모(교황, 418년)
12월 27일	성녀 니카레테(동정녀, 410년경), 성 요한(사도, 복음사가, 100년경) 성 테오도로(수도승, 순교자, 775-841년), 성녀 파비올라(과부, 로마, 399년)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2월 22일 월요일은 (故) 서정덕 알렉산델 주교님 선종 13주기입니다.

■ 가톨릭미술가회 100주년 성전건립기금 전달



교구 가톨릭미술가회(담당 : 김도율 요셉 신부)는 12월 10일(수) 오후 3시 30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 100주년 기념 주교좌범어대성당 성전건립기금 750만 원을 봉헌하였다.

■ 2014년 가정을 위한 대림피정



대주교님께서는 12월 13일(토) 오후 5시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의실에서 『2014년 가정을 위한 대림피정』 파견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 및 기사 제공 : 월간 <빛>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YHY청소년센터

다양한 강좌 및 동아리 운영 | 초·중·고 무료 공부방
어머니 기도회 모임(매주 월요일)

장소: 대명로 182 대경빌딩 지하 1층

문의: 청소년센터, 657-9220

내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12월 22일(월) 11:00 수성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2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23일(화) 14:00 계산성당

성소 | 피정

2박 3일 무료 피정(작은예수회)

기간: 12.30(화)~1.1(목)
장소: 가평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0)2646-0583

분도 명상의 집 12월 시편 영성 피정

기간: 12.30(화) 16:00~1.1(목) 13:00
준비물: 성경책, 미사책, 산책신발
지도: 정학근(모세) 신부, 피정비: 12만 원
신청: (051)582-4573 / (010)6650-4574

성령봉사회 2박 3일 성령세미나

기간: 1.9(금) 13:00~11(일) 17:00
2.13(금) 13:00~15(일) 17:00
1박 2일 피정: 1.24(토) 14:00~25(일)
장소: 고령 월막피정의집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23(금) 17:30~25(일)
4박 5일: 1.19(월) 14:00~23(금)
8박 9일: 1.26(월) 14:00~2.3(화)
이냐시오: 1.19(금) 14:00~23(금)
장소: (031)946-2337~8

교육 | 모집

2015 대구 선택 디퍼(심화과정)

기간: 1.3(토)~4(일), 꾸르실로교육관
대상: 대구선택주말 수료자 40명
문의: 홍대식 대건안드레아
(010)4724-2427

3박 4일 꾸르실로 실시

남성 제250차: 1.8(목)~11(일)
남성 제251차: 1.22(목)~25(일)
여성 제237차: 1.29(목)~2.1(일)
실버 제3차: 3.12(목)~15(일)
문의: 254-4671

요셉 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우리의 건강이 보인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 토 14:00~16:00, 가톨릭문화관
문의: 476-7774 / (010)3817-5255
<http://www.footfather.com>

대구대교구 가톨릭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규단원 모집

각파트 기악전공자 0명(학부 재학생 가능)
접수마감: 12.31(수)
문의: (010)8996-8675
홈페이지: www.catholicphil.org

2015학년도 전기 추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5(월)~14(수)
분야: 17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모집요강 참조: <http://edu.cu.ac.kr>
문의: 850-3505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기간: 1.8(목)~10(토) 2박 3일
대상: 중1~2학년
접수: 12.22(월)~24(수) 선착순
양업고 홈페이지(www.yangeob.hs.kr)
문의: (043)260-5076

가톨릭상지대학교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
의 가톨릭 전문대학
정시1차 모집: 12.19(금)~1.2(금)
모집요강은 대학 입시홈페이지 참조
<http://ipsi.csj.ac.kr>
문의: 교무처, (054)851-3011, 14

2015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0(월)~15.2.6(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

“겨울방학 특집 가족캠프”
일본 성지순례 문화탐방
나가사키, 운젠, 구마모토, 아소 (4일)
※출발일 - 1월 5일, 28일
T. (053)253-3399
조 철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벨라)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분도의 한방을 기름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분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 (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대구웨딩몰
www.dgweddingmall.com
• 대구 최대규모 웨딩박람회 전시장
• 대구 전지역 예식장 상담 및 혜택
• 웨딩드레스 스튜디오 할인
• 혼수 할인
매일 착한 대구웨딩박람회 개최
문의 053-425-0216 최형열 바실리오 010-9687-0500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전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행사 | 모임

성북성당 본당설립 25주년 기념 사업기금 마련 잠비천 판매 종료

본당 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 정기총회

일시: 1.3(토) 15: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각 본당 학장 및 실무자

신청마감: 2014.12.28(공문 참조)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6

교육 | 모집

학생 후보 기자단 모집

신청: 1.2(금)까지 서류 제출

대상: 초4~고2(2015년 기준)

활동: 월모임, 입단캠프, 문학기행 등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틴스타(청소년 성교육) 워크숍

기간: 1.13(화)~16(금) 9:00~17:00

장소: 앞산 밑 북카페 3층

대상: 성교육에 관심과 봉사에 뜻이 있는

신분 및 각 본당 교리교사 / 신청비: 18만원

문의: 봉사자, (010)9544-1838

기초반 수화 교실

기간: 1.4(일)~4.5(일)

장소: 계산성당, 매주일 14:00~16:00

수강료: 3개월 7만 원 교재비별도

신청: 청각장애인선교회, (011)809-0447

제7기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기간: 1.12(월)~16(금)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www.dgsay.net)

스페인어 수강생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253-1313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성인, 어린이)

바이올린, 오카리나, 초크아트, POP,
틀피인팅, 백세건강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신암성당 남자 사무원 채용

자격: 전문대졸 이상 열심한 신자,

35세 이하 남자

신청마감: 12.28(일)

문의: 신암성당, 958-1005

2015년 해성유치원 교사 채용

위치: 북구 사수동 (베네딕도수녀원 내)

모집분야: 유치원 정교사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313-1100 / (010)8712-3651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지원자격: 35세 이상 미혼 여성

4년제 대학졸업자 중 가톨릭신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거주, 2년 계약

문의: 859-4063~4 / 마감: 12.31(수)

상세: <http://dormitory.cu.ac.kr>

백합식품 직원 채용

수녀원 매주공장 남자직원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운전가능

메일: spcfood@hanmail.net

문의: 경산자인 백합식품공장, 857-2037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각 본당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에 사
랑을 전해주세요. 헌옷, 가전, 기타

제품 등 해외난민지원사업 및 어려
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555-4846 / 253-9991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에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

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은경(수산나), 이지숙

2015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 일자: 8월 9일, 16일, 23일

문의: 문화홍보실, 250-3048~9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확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이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천락(리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예약 260-7777 ☎응급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장(구 달성군청지리)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맥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피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의학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를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함덕(바오로) 011-514-3855